

국어 어휘 교육의 위상

이 충 우*

<차례>

- I. 서론
- II. 어휘 · 어휘소 · 어휘력
- III. 국어 교육과 어휘 교육
 - 1. 언어 사용 기능 교육으로서의 국어 교육과 어휘 교육
 - 2. 도구 교과 교육으로서의 국어 교육과 어휘 교육
- IV. 결론

I. 서론

인간은 언어를 통하여 경험과 지식 등을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문화와 문명을 이루었다. 대부분의 학습은 언어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교사와 학생 모두가 언어를 통하여 필요한 것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다.

언어 교육은 언어 사용 능력 즉, 의사 소통 기능을 신장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며, 언어 사용 능력의 주요 요소인 어휘력을 기르는 어휘 교육은 언어 교육에서 매우 중요하다.

초등 학생이 고등 학생 수준의 언어를 표현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언어 지식과 관련지어 볼 때 음운 지식이나 문법 지식이 부족해서

* 관동대학교 국어교육과 (leecw51@yahoo.co.kr)

라기보다 어휘 지식(어휘력)이 부족해서일 경우가 많다.

다음의 경우를 보자.

(ㄱ) 천연 고무는 흡수성이 있어 지방에 의해 침범되기 쉽고, 노화가 빠르며, 변형 팽윤이 빠르다.

(ㄴ) 생고무는 빨아들이는 성질이 있어 기름에 약하고, 쉽사리 상하며, 쉽게 모양이 달라지거나 굳어지게 된다.

(1) (ㄱ)보다 (ㄴ)이 쉬운 이유는 무엇인가?

(3) 이해하기 쉬운 글은 어떤 글인지 말해 보자(5차 교육과정 중학교 국어 1-1 : 31-32).

(ㄱ)은 고등 학생이 표현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어휘가 사용되었으며 (ㄴ)은 초등 학생이 표현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어휘가 사용되었다. 따라서 초등 학생이 고난도 문장인 (ㄱ)을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음운론적 지식이나 문법론적 지식이 부족하여서라기보다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나 쓰일 고난도 어휘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다. 또한 (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휘력을 가진 학생은 당연히 (ㄱ)과 같은 표현을 할 수 없다.

언어 교과가 모든 교과의 도구 교과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교과가 바로 언어를 통하여 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언어를 통한 학습은 언어로 표현하고 언어로 이해하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언어로 표현하고 이해하는 과정에 대한 이해는 모든 학습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 교과의 학습을 잘 하기 위해서도 도구 교과로서의 국어 교과를 교육한다고 말할 수 있다. 물론 국어 교과의 첫째 기능은 의사 소통 기능이고 도구 교과로서의 기능은 부차적인 것이다. 학습 자료에 쓰인 어휘를 모르고는 그 자료의 이해가 불가능하므로 지식 습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휘력은 모든 학습의 기본 능력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읽기나 듣기를 통하여 모든 교과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어휘의 이해력이 필

요하고, 관련 교과에의 이해를 위한 어휘력은 바로 관련 교과에의 기초 능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이미 많은 어휘 교육의 중요성을 다룬 논문이 나왔지만 이들은 대부분 어휘 교육의 중요성을 논문의 일부분으로만 다루었을 뿐이다. 또한 어휘 교육에 관한 연구가 언어 능력 신장 즉 의사 소통 기능 신장의 중요성은 주장하였지만 지식 학습을 위한 도구 교과로서의 국어 교과에서 차지하는 어휘 교육의 중요성은 별로 다루지 않았다.

본고는 어휘 교육의 위상을 고찰하기 위하여 어휘·어휘소·어휘력의 관계를 규명하고, 언어 사용 기능과 어휘 교육의 관계를 '표현과 어휘력' '이해와 어휘력'으로 나누어 규명한다. 그리고 지식의 학습—모든 교과에의 교육과 어휘 교육에 대하여 고찰한다. 어휘 교육이 언어 사용 능력 신장—의사 소통 기능 신장에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휘 교육은 국어 교육에서 중요하다. 그리고 의사 소통 기능은 국어 교과가 타 교과의 도구 교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된다. 모든 교과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어휘 교육이라면 이는 이제까지의 의사 소통 기능을 신장하는 중요성과는 다른 어휘 교육의 중요성을 가지는 것이다. 물론 도구 교과로서의 기능은 크게 보아 의사 소통 기능에 속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지식 학습을 위한 어휘 교육의 필요성은 도구 교과로서의 국어 교과 교육의 관점에서 따로 다르다.

II. 어휘·어휘소·어휘력

어휘 교육은 학습자의 어휘력을 신장하는 교육으로서, 교육의 내용·목표가 되는 어휘를 학습자에게 가르치는 것이다. 어휘는 어휘소가 모여서 이루어지며 어휘는 어휘소로 나뉘어진다. 따라서 어휘 교육의 위상을 논하기 위해서는 어휘·어휘소·어휘력의 관련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어휘’는 어휘소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국어 어휘는 국어의 모든 어휘소들의 집합체이며, 친족 어휘는 친족을 나타내는 어휘소들의 집합체이

다. 따라서 어휘는 집합체로서 사용된다. 이에 비해 ‘어휘소’는 개별체로서 어휘를 구성하는 요소가 된다. 곧 어휘소는 단위이고, 어휘는 어휘소 총체로서 집합적인 성격을 띤다. 음식을 만드는 여러 어휘소들이 모여서 ‘조리 어휘’가 되고, 동작을 나타내는 많은 어휘소들이 모여서 ‘동작 어휘’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어휘들이 모여서 국어 어휘를 이룬다. 국어 어휘는 수많은 하위 어휘로 나뉘어질 수 있고 이들은 최후에 어휘소들로 나뉠 수 있다.

‘어휘소’는 ‘언어를 구성하는 작은 의미 단위’인 ‘의미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접사, 조사, 어근, 단일어, 합성어, 파생어, 관용어 등이 모두 어휘소에 해당한다. 보통 ‘단어’로 이야기되기도 하는 어휘소는 경우에 따라 ‘어휘’와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어휘를 이루는 것이 어휘소이고 어휘소가 모여서 어휘를 이루는 것이기에 어휘소는 어휘와 구분되어야 한다. 또한 ‘개밥에 도토리’ ‘누운 소 타기’와 같은 관용어 등은 ‘단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단어’와도 구분되어야 한다. 따라서 어휘소는 어휘를 이루는 요소이며 언어의 하위 의미 단위이다. 어휘소가 모여서 문장을 이루고 이야기를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어휘소를 교육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어휘를 교육하는 것이 된다.

‘어휘력(語彙力)’은 어휘에 대한 총체적인 지식으로서 형태와 의미, 용법에 관한 지식, 정확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는 능력 등을 이른다. 어휘력은 음성 언어 및 문자 언어를 이해하는 열쇠이며, 어휘력이 없으면 음성 언어이든 문자 언어이든 이해할 수가 없다.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소들이 관여해야 하지만 어휘 관련 요소가 배제된다면 다른 요소들만으로는 언어 생활을 영위할 수 없다. 설령 어휘 요소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되는 경우라도 어휘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중요 요소이기 때문에 어휘력은 그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언어 활동의 요소가 된다. 어휘력은 의사 소통 능력의 중요한 기반이 되며, 어휘 지도의 결과로 얻은 어휘력의 정도는 국어 사용 능력의 질적인 차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며, 어휘 교육의 결과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의 교육에 활용된다. 결국 어휘 교육은 일차적으로 어휘력

을 신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국어 사용 능력을 신장하는 것이다.

의사 소통이 기호화와 기호 해독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그 기호로서의 어휘는 어휘소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어휘소는 기호를 이루는 주요 요소가 된다. 따라서 어휘소를 알면 이들과 관련된 언어의 기호화와 기호 해독을 잘 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한 능력인 어휘력은 의사 소통에 필수적이다. 어휘 교육이 어휘력을 신장하는 것이라면 어휘력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어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어휘의 이해는 어휘소의 이해를 전제로 한다. 결국 어휘소의 이해는 어휘의 이해와 어휘력의 신장을 가져와 어휘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언어를 통한 의사 소통은 기본적으로 어휘소의 이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를 교육하는 어휘 교육은 궁극적으로 언어 교육의 목표 달성을 돕는다. 그리고 이러한 어휘 교육은 '의사 소통 능력을 신장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하는 국어 교육'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언어를 사용한 의사 소통 기능은 다른 교과 학습에 도움을 주는 도구로서의 기능도 하기 때문에 모든 교과 교육에서도 어휘 교육의 중요성은 아주 크다고 하겠다.

이에 대하여는 'III. 국어 교육과 어휘 교육'에서 상술한다.

III. 국어 교육과 어휘 교육

국어 교육은 언어 교육이다. 따라서 국어 교육을 논하려면 언어 교육의 문제부터 논하여야 한다.

언어 교육은 Goodman et al.(1987: 171)에 의하면, ㄱ) 언어 학습(learning language) : 아동으로 하여금 더 효과적인 언어 사용자가 되게끔 도와주는 학습, ㄴ) 언어를 통한 학습(learning through language) : 아동들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에서 의사 소통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한 학습, ㄷ) 언어에 관한 학습(learning about language) : 아동들에게 언어에 관한 지식과 술어를 제공함으로써 언어가 어떻게 작용하

는지를 이해하고 논의하게 하는 학습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국어 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런 언어 교육, 국어 교육에 대한 견해는 언어 교육, 국어 교육의 본연의 목적이 언어(국어) 사용 능력의 신장이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에만 가능하다. 언어 사용 능력이 전제되지 않은 '언어를 통한 교육'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어 교육은 언어 교육이고 국어 사용 능력 신장을 최우선의 교육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이 언어 교육의 목표가 언어 능력 또는 언어 사용 능력을 신장하는 것이라 할 때 이의 주요 구성 요소인 어휘력은 어휘 교육을 통하여 기를 수 있는 것이므로 국어 교육에서 어휘 교육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어휘 교육이 왜 국어 교육에서 중요한 것인가에 대하여는 어휘력이 어떻게 언어 사용과 관련을 갖는가와 언어 능력에 관련을 갖는가를 밝힘으로써 가능해진다.

언어 능력이나 언어 사용 능력은 의사 소통과 관련을 갖는다. 개인 자체의 의사 소통이라 할 수 있는 언어로 사고하기도 언어 능력이면서 의사 소통 능력인 것이며, 언어 사용 능력도 의사 소통 능력인 것이다. 따라서 의사 소통에 대하여 어휘와 관련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사 소통은 정보가 출처(발신인)에서 목적지(수신인)로 전해지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1) 정보를 상징적인 체계로 기호화하는 것, 2) 의사 소통의 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 3) 매개물을 통해서 상징을 전하는 것, 4) 수신인에 의한 상징의 지각적 분석 과정(의사 소통이 일어나려면 수신인은 그 상징을 지각해야만 한다), 5) 정보를 얻기 위해서 상징을 해독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신현숙·이기동 역, 1983 : 4). 이 때 1)과 5)는 기호로서의 어휘소의 기호화(encoding), 기호 해독(decoding)에 해당하는 것이다. 언어 내용 또는 의미를 표현 전달하기 위하여 우리는 어휘를 사용해야 하며 언어 내용 또는 의미를 이해 수용하기 위해서는 어휘가 나타내는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국어 교육의 목표 중 '언어 사용 능력의 신장'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국어 교육의 목적이다. 그렇다면 언어 사용 능력과 어휘의 관계는 어

떠한가를 살핍으로써 국어 교육에서의 어휘 교육의 위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언어 사용 기능의 주된 것으로 우리는 말하기·쓰기와 같은 표현 기능과 듣기·읽기와 같은 이해 기능을 들 수 있다.

1. 언어 사용 기능 교육으로서의 국어 교육과 어휘 교육

언어 사용의 주된 목적은 의사 소통에 있다. 언어의 기능 중 첫 번째 기능이 의사 소통 기능인 것이다. 바로 의사 소통을 통하여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의사 소통이 이루어지는 언어의 의사 소통 조건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언어를 통한 의사 소통은 화자의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가 어떻게 언어 기호로 작성되어 청자에게 전달되느냐를 생각해야 한다. 화자의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청자와 공유하는 사회적 산물인 언어 기호로 발화되고 이는 청자에게 의미로 해석되는 과정을 겪는 것이다. 그렇다면 의미의 전달은 기초적으로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일까? 여러 이론이 있지만 우리는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소를 그 첫 번째 의사 전달 도구로 이야기할 수 있다.

언어는 의사를 소통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의사 소통을 하기 위해서 화자는 전달하려는 의미를 언어를 통해서 청자에게 전달한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언어는 의미를 담아야 하는데 바로 이러한 말하기와 쓰기와 같은 표현 행위와 읽기와 듣기와 같은 이해 행위, 그리고 언어를 통한 생각하기 등이 모두 어휘에 의지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이용주(1993)의 “의미는 최소 단위인 의미소에 해당하는 어휘소에서부터 문장, 담화·텍스트까지에 실려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서도 최우선의 의미 전달체는 어휘소이다. 따라서 언어에 대한 교육은 국어 교육의 목표를 의사 소통 기능 신장이든, 언어를 통한 사고력 신장이든, 어휘와 관련된 내용을 제외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모든 언어를 통한 교육은 어휘와 관련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사람은 어휘소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수록 자신의 경험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고, 어휘소를 더 많이 알수록 자신의

경험을 더 풍부하게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표현된 정확하고 풍부한 경험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어휘 교육은 지식, 예술, 문화를 전달하는 모든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

어휘를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글의 경우를 다음 글에서 볼 수 있다.

吾等은 茲에 我 朝鮮의 獨立國임과 朝鮮人의 自主民임을 宣言하노라. 此로써 世界萬邦에 告하야 人類平等의 大義를 克明하며, 此로써 子孫萬代에 誥하야 民族自存의 正權을 永有케 하노라. <己未獨立宣言書>

우리가 己未獨立宣言書를 이해하기 위하여는 (현재 잘 사용하지 않아) 어려운 어휘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 어휘를 모르고는 위 글의 의미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글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글에 나타난 어휘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다. 위와 같은 글은 당시의 수많은 사람들이 위 글에 나타나는 어휘의 정확한 뜻을 알기 어렵다는 면에서 선언서가 갖는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목적으로는 부적절한 글이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그러나 위의 글은 다른 글로 바꾸어 썼을 때 표현이나 이해의 측면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위와 같은 글을 쓸 수 있으려면 위의 글에 쓰인 어휘를 사용할 수 있는 어휘력을 갖추어야만 한다. 비록 많은 사람이 알 수는 없는 글이지만 그 당시의 언어 생활에서 무게 있는 글로 취급되는 '선언서'의 힘이 나타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의 글은 여러 사람에게 '독립 선언'의 의미를 알리는데는 문제가 있었을지는 몰라도 글의 무게를 늘이는 데는 성공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것은 장중한 표현을 나타낼 수 있는 어휘력이 없는 불가능한 것이다.

어휘 선택에서 청자의 심리적 문제를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표현의 문제는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효과를 얻을 목적으로 언어를 사용하느냐와 관련된다. 상대방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보다

적절한 어휘소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다. 간호사(nurse)는 그 호칭이 看護婦 > 看護員 > 看護師로 변해 왔다. ‘-婦’는 ‘가정부, 파출부’의 ‘-부’와 같은 의미를 줄 수 있고 ‘-員’은 ‘직원, 교원’의 ‘-원’과 같은 의미를 띠고 있다. 그러나 ‘간호원’보다는 ‘간호사’가 ‘의사, 약사’와 같이 전문인으로서의 호칭에 적절하다고 여겨져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지금은 ‘간호사’로 명칭이 바뀌어 쓰이고 있는 것이다. ‘-師’는 ‘선생님’으로 불리게 되고 ‘선생님’은 ‘교사’의 일반적 호칭과 동시에 일반 성인들에게 경칭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간호사에게 간호원이나 간호부라는 호칭을 사용했다면 간호사의 기분이 좋아지기 어렵다. 이 경우 우리는 어휘소를 적절하게 가려 정확하고 기분 좋은 어휘소를 사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의 언어 사용의 효과에 대한 차이를 실감할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처럼 용어의 개정은 바로 청자의 심리적 문제를 고려하여 이루어지고 이는 어휘력과 연결되어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는 능력의 문제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1) 표현과 어휘력

잘 표현된 말과 글은 어휘의 적절한 사용 없이는 불가능하다. 표현이 잘 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이 중에는 어휘의 적절한 사용과 부적절한 사용 때문인 경우도 있다.

국어 교육에서 표현 교육은 언어 사용에서 표현력을 길러주기 위함이며, 이는 주로 ‘말하기, 쓰기’의 교육으로 나타난다. 표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표현 어휘가 풍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의 격차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¹⁾ 초보적인 표현의 경우 우

-
- 1) 표현 어휘는 발신자가 말하거나 글을 지을 적에 사용이 가능한 어휘로서 능동적 어휘, 발표 어휘, 사용 어휘라고도 한다. 표현 어휘는 발신자의 회화나 문장에 나타나며 이해 어휘의 20%~30%에 해당한다고 본다. 표현 어휘가 다양하다는 것은 언어 표현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어휘의 풍부성이 높다고 말할 수 있다. 표현 어휘가 풍부하면 보다 적절한 어휘 표현을 잘 할 수 있으며, 어휘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해 어휘와 표현 어휘의 차이를 줄여서 표현 어휘를 확대해야 한다.

리는 말 배우는 아이처럼 단순히 어휘소의 나열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어휘소의 나열로 이루어진 표현은 비록 초보적인 의사 소통 수단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의사 소통의 기초적인 도구가 어휘소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다음은 한국어를 배우는 폴란드의 대학생(4학년)이 쓴 요리 설명서이다.²⁾ 가능한 한 표기는 원문대로 처리했으며 한글이 아닌 것은 폴란드어와 영어로 쓴 것이다. () 속의 글은 필자의 글이다.

소고기 국 / 돼지고기 국 국 네사람분
ZUPA GULASZOWA(폴란드어로 '국 끓이기'임)

양파 - 2개
기름 - 5큰술
고추(고춧가루) - 2작은 술
소고기/돼지고기 - 1/2 키로그램
감자 - 2/3 개
당근 - 2 개
미나리 - 2 개(포기)
소금

양파 2 개 자르고 기름 5 큰술에 약간 볶게 합니다. 고추 2 작은 술을 보태다.

소고기 / 돼지고기 1/2 키로그램을 수프에 (넣고) 소금을 치다.

물 주다. 10분 요리합니다.

물 2 리터 부어서 빼다(의미 미상). 감자과('와'의 오용) 당근과 미나리를

2) 위 글을 쓴 학생은 폴란드의 아담미츠키예비츠대학교 민족언어학과(ADAM MICKIEWICZ UNIVERSITY, DEPART. OF ETHNOLINGUISTICS) 학생이며, 이곳 학생들은 보통 3개 국어를 전공하며, 각 전공어를 1주일에 8 시간(1, 2, 3 학년)이나 4 시간(4, 5 학년)을 배운다. 그리고 5개년의 학업을 마치고 한 전공어에 대한 졸업 논문이 통과되면 석사 학위를 받는다. 물론 이 학생의 경우 한국어 성적은 저조하다.

자르다, 그리고 국에 주다. 요리합니다.

어서 잡수십시오!

‘고추’는 ‘고춧가루’를 잘못 쓴 것이며, ‘물을 붓다’를 ‘물 주다’로, ‘국에 넣다’를 ‘국에 주다’와 같이 일부 어휘소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으나 독자가 이 글을 읽을 때 의미상으로 큰 어려움이 없이 이해가 가능하다. 우리는 위의 글에서 어휘력이 있기 때문에 어휘소의 단순 나열에 불과한 글로 의사를 표현하는데 큰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 학생은 복잡한 문장을 구성하여 자신의 글을 쓰기보다는 어휘소의 단순 나열로 위의 글을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다.

이와 같이 어휘소만의 나열로도 충분히 의사를 전달하고 있음은 어휘 교육이 언어 교육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의 경우는 어휘소 의미를 잘못 알아서 의사 소통에 부적절한 경우이다. 이 예는 한국어 통사와 음운의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한국어를 전공하는 외국인 학생들의 음성 언어 표현이다.

학생 1 : 당신은 언제 폴란드에 도착했습니까?

학생 2 : 한국의 여름은 너무 휴미디티(humidity)해서 아주 힘들었습니다.

‘학생 1’은 ‘당신’의 사용 의미가 영어 ‘you’와 같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교수에게 ‘당신’이라고 한 것이다. 이 학생은 한국어 공부를 할 때 담당 강사가 항상 ‘당신’으로 표현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영어의 ‘you’는 청자를 지칭하는 말로 국어에서는 청자의 지칭어를 말해야 한다. 즉, 청자가 교수이면 ‘선생님, 교수님’, 청자가 어머니이면 ‘어머니’로 불러야 하는 것이며, 부부간이거나 아주 허물없는 친구 사이가 아니면 ‘당신’은 사용하기 부담스러운 말이다. 따라서 ‘학생 1’은 ‘당신’이라는 어휘소를 정확히 몰라 부적절한 표현을 한 것이다. ‘학생 2’는 한국에서 한국 문화 연수 과정을 이수한 후 폴란드로 돌아온 학생으로서 한국에서의 생활을

한국인에게 말한 것이다. ‘학생 2’의 말은 ‘무덥다, 후텁지근하다, 습도가 높다’ 등 기후를 나타내는 어휘를 모르기 때문에 영어를 사용한 것인데 이때 그 학생이 영어 ‘humidity’도 몰랐다면 폴란드어를 모르는 한국인에게 알아듣게 설명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런 경우는 외국어를 알면서 국어 어휘력이 부족한 일부 지식층의 언어 표현에서도 나타난다. 그들은 세분화된 국어 어휘를 모를 때 자기가 아는 외국어를 사용하여 표현한다. 그러나 청자가 그 외국어를 모르면 의사 소통은 불완전해진다. 표현을 정확하고 적절하게 할 수 있으려면 정확하고 적절한 어휘를 사용할 수 있는 어휘력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표현력’을 기르는 국어 교육에서 어휘 교육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끝으로 필자가 어려서 어른들께 들은 ‘부적절한 어휘 사용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옛날에 한 어리석은 처녀가 시집을 가게 되었다. 이 처녀는 친정에서 ‘비속어’만 사용하였기 때문에 처녀의 부모는 시집가는 딸에게 ‘시댁 어른에게는 항상 경어를 써야 하고 경어는 ‘-님’을 붙이면 된다’라고 알려 주었다. 처녀는 시집가서 며느리가 되었다. 하루는 이 며느리가 나뭇짐을 지고 온 시아버지를 보니 머리에 검불이 붙어 있었다. 며느리는 경어를 쓰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시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님 대갈님에 검불님이 올라 앉으셨습니다”

2) 이해와 어휘력

말이나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이나 글에 쓰인 어휘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이해 대상 어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어휘 지식은 음성 언어 및 문자 언어를 표현하고 이해하는 열쇠이다. 어휘 지식이 없으면 음성 언어이든 문자 언어이든 제대로 표현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 어릴 때부터 듣기 장애를 가진 농아들은 어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기초 개념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많은 어휘 지식을 알고 있는 언어 사용자는 그만큼 성공적인 독자가 될 수 있다. 책을 펼쳤을 때 아는 단어가 많으면

그만큼 그 글을 이해하기가 수월해진다(박영목 · 한철우 · 윤희원, 1996 : 270).³⁾

다음을 보자.

우리 사람이란 — 세속에 얽매여, 머리 위에 푸른 하늘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주머니의 돈을 세고, 지위를 생각하고, 명예를 생각하는 데 여념이 없거나, 또는 오욕 칠정에 사로 잡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데 마음에 영일(寧日)을 가지지 못하는 우리 사람들이란, 어떻게 비소하고 어떻게 저속한 것인지, 결국은 이 대자연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조화를 깨뜨리는 한 오점(汚點) 또는 잡음밖에 되어 보이지 아니하여. 될 수 있으면 이러한 때를 타서 잠깐 동안이나마 사람을 떠나, 사람의 일을 잊고, 풀과 나무와 하늘과 바람과 한가지로 숨쉬고 느끼고 노래하고 싶은 마음을 억제할 수가 없다. <이양하, 신록 예찬>

‘이양하’의 ‘신록 예찬’은 중등 교육을 받은 사람이면 이해할 수 있는 글이지만 초등 학생에게는 그 글에 사용된 어휘가 어렵기 때문에 이해하기 어려운 글이 된다.

어느 회사의 신입 사원이 과장과 한가롭게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다. 과장은 신입 사원이 자기와 동성임을 알고 신입 사원에 대한 호감을 갖고 이야기 도중 본관을 물었다.

과장 : 집안이 좋더구먼. 본관이 어디요?

신입 사원 : 저보다 잘 아시면서요. 이 건물 뒤에 있잖아요.

-
- 3) 이해 어휘는 수신자가 그 의미나 용법을 알고 있는 어휘로서 수동적 어휘, 획득 어휘라고도 한다. 표현 어휘(사용 어휘)는 물론 이해 어휘에 속하나 이해 어휘 중에는 수신자가 사용하지 않는 어휘가 포함된다. 인간의 이해 어휘의 양은 대략 표현 어휘의 3~5배에 달한다고 본다. 다른 나라의 경우 이해 어휘의 양을 4~5만 어 내외(고유명사 제외하면 약 3만 어)로 보는데 이는 한 언어 집단 내에서 통용되는 어휘의 수를 말한다. 이해 어휘량이 많을수록 어휘 이해를 잘 할 수 있으며, 특히 독해력이나 청해력은 이해 어휘량에 영향을 받는다. 어휘력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표현하지 않는 이해 어휘를 표현 어휘로 바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장은 동본(同本)인가를 알려고 본관(本貫)을 물었고, 신입 사원은 본관(本貫)의 의미를 모르고 본관(本館)만 알기에 과장이 장난하는 줄 안 것이다.

위의 경우는 동음이의어의 문제일 수 있으나 신입 사원이 본관(本貫)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무지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어휘력이 약하면 모르는 어휘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의사 소통, 나아가 사회 생활에서 실패하는 것이다.

다음은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 온 글을 정리한 것이다.

뜨거운 게 시원한 거다. 한국인은 참으로 말을 이상하게 해댄다. 나는 근처에도 못 가는 열기적이고도 살벌하게 뜨거운, 그리고 매운 그 찌개를 떠먹으면서도 연실 “아~ 시원하다”를 연발하는 것이다. 도대체가 알 수가 없다. 언제 뜨겁고 언제 시원하다고 말을 해야 할지 나는 아직도 모른다. <외국인의 한국 생활, 한국어에 관한 관찰 기록, pastel(김재원)>

위의 글은 ‘시원하다’의 일차적 의미만 아는 외국인이 뜨거운 찌개를 먹는 한국인이 ‘시원하다’고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낸 것인데 이런 경우는 어휘력이 부족한 어린이들이 어른들이 뜨거운 육조에 들어가서 ‘아~ 시원하다’고 말할 때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어휘력이 약한 사람들은 다의어와 세분화된 어휘의 사용에서 어려움을 느낀다. 다의어의 일차적 의미는 알지만 이차적 의미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며 세분화된 어휘는 유의어와의 차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아과 의사는 환자를 진찰할 때 환자의 자각 증상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어린이는 다양한 어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증상을 의사에게 표현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의사가 묻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배가 아프다’고 우는 어린이에게 어떻게 배가 이상한지를 알기 위해서 의사는 ‘뒤틀리듯이 아프다, 더부룩하다, 메스껍다. 울렁거리다, 따끔거리다, 살살 아프다 등등’의 말로 물어보지만 어린이는 이

세분화된 어휘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아프다고만 말한다. 따라서 소아과 의사는 문진(問診)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만일 어린이가 환자가 증상을 묻는 의사의 어휘를 이해할 수 있는 어휘력이 있다면 보다 정확한 진찰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경우는 국어 어휘력이 약한 의사가 환자의 어휘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도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표현에서는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어휘를 모르더라도 그 의미에 적절하게 일반 기초 어휘로 풀어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나 이해에서는 다르다. 기초 어휘만을 가지고 상대방이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어휘를 상대방이 사용하면 앞뒤 문맥으로 추론하거나 사전을 사용하거나 해야 한다. 또한 언어 생활의 대부분은 표현보다는 이해하는 활동이 훨씬 많다. 따라서 이해에서의 어휘력은 아주 중요하다.

이와 같이 말이나 글을 이해하는데는 어휘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어휘에 대한 능력이 언어 능력, 언어 사용 능력의 주요 요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세분화되고 전문화된 어휘를 많이 알면 알수록 보다 정확하고 상세하게 관련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

2. 도구 교과 교육으로서의 국어 교육과 어휘 교육

1) 도구 교과

우리는 국어 교과를 도구 교과라고 부른다. 도구 교과란 초등 학교 저학년 국어 교과가 학생들에게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도록 지도하는 교과이며, 문자를 읽고 쓸 수 있는 능력은 곧 다른 교과서를 읽고 쓸 수 있는 도구가 되기 때문에, 국어 교과는 학생들에게 다른 교과 학습에 필요한 도구(능력)를 갖추게 하는 교과라고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국어 교과의 도구 교과로서의 성격을 문자 읽기나 문자 쓰기 정도로 한정하여 규정함은 초보적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국어 교과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언어 사용 기능은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언어 활동을 통해서 모든 언어를 의미로, 또는 의미를 언어로 재구성하는 복합적인 사고 기능을 뜻하는 것이다. 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문자를 읽

고 쓸 수 있는 기초 기능을 넘어서서 학생들에게 사고를 언어로 표현하고, 또 언어를 통해서 사고를 이해하는 고등 정신 기능을 신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은 순차적으로 주어지는 말이나 글을 듣거나 읽고 그 의미를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이해 과정과,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입체적 형태의 의미를 순차적인 말이나 글로 엮어내는 표현 과정 속에서 구현된다. 국어 교과가 도구 교과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함은 곧 국어 교육에서 기르고자 하는 언어 기능이 지식 자체가 아닌 지식의 활용 기능을 뜻하며, 지식을 활용하는 기능은 범교과적으로 모든 학습 활동에서 도구적인 지적 기능이기 때문이다(노명완·박영목·권경안, 1988 : 17-20 참조).

위와 같은 국어 교과가 다른 교과의 도구 교과가 된다는 주장은 기본적으로는 국어 교육이 다른 교과의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국어 교과는 도구 교과와 내용 교과 양면을 공유하는 교과이지만 이곳에서는 다른 교과 교육에 도움이 되는 도구 교과로서의 국어 교육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특히 어휘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강조하려 한다. 무엇보다도 국어 교과의 도구 교과로서의 기능이 가장 분명하게 인식되는 영역 중의 하나가 어휘 부분이며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지식의 결정체는 결국 주요한 개념이나 원리들로서 이는 바로 그 개념이나 원리를 담고 있는 용어(낱말)로 전달되는 것이다(손영애, 1992: 139).

어휘력이 국어 교육에서 도구로 기능한다는 생각은 독해 이론의 도구 가설이다. 도구 가설은 개별 어휘 의미에 대한 지식이 독해에 일차적으로 관여하는 요소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더 많은 어휘 의미를 알수록 학습자의 독해 능력은 증진되리라고 본다. 따라서 어휘를 많이 지도하는 것이 읽기 지도에서 중요하다는 교육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그런데 이 도구 가설은 결국 대다수의 학습이 교재(글)를 읽고 이 글의 의미를 이해하여야 가능하다는 면에서 다른 교과 학습의 도구가 된다고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도구 가설이 지식 가설보다 강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⁴⁾ 모든 지식의 학습에 의사 소통의 기본 도구인 어휘가 빠질 수 없고

어휘력이 전제되지 않는 지식 가설이 존재할 수 없다고 보면 기초적인 국어 교육은 어휘 교육으로 어휘력을 기를 경우에 더욱더 도구교과로서의 기능을 잘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2) 지식의 학습과 어휘

지식 학습의 대부분은 책 읽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책 속의 글을 읽어 글의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이고 글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글 속의 어휘 의미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글 속의 어휘는 일반 어휘와 전문 어휘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 어휘는 일반적으로 언어 생활에서 사용하는 어휘를 말하며 전문 어휘는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어휘로 전문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어휘를 말한다. 그런데 전문 지식을 학습하기 위한 글의 일반 어휘가 학습자의 어휘 발달 수준보다 어려운 어휘라면 학습자는 글을 이해하기 어렵다. 또한 학습자의 어휘 수준에 맞는 일반 어휘로 글이 이루어져 있다 하더라도 함께 쓰인 전문 어휘의 의미를 모른다면 학습자는 글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때 일반 어휘는 설명하기 위한 어휘로 학습자가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어휘여야 하며 전문 어휘는 전문 분야의 세분화된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어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특정 전문 지식을 학습하는 데는 특정 전문 어휘가 필요하며 우리는 바로 이런 전문 어휘의 학습을 통하여 해당 전문 지식을 학습할 수 있다.⁵⁾ 모든 지식의 학습에 관련되는 전문 어휘는 전문 학습

4) 도구 가설은 개개의 단어의 의미를 강조하지만, 지식 가설은 개념의 뼈대, 즉, 스키마를 강조한다. 지식 가설에 의하면, 개개 단어의 의미는 개념이란 병산의 한 부분일 따름이다(박영목·한철우·윤희원, 1996).

5) Bross(1973: 217)의 말을 인용하면 외과 의사는 신체 구조에 대한 지식을, 일부는 그의 수련 과정을 통한 직접 경험으로부터 얻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의학 용어를 통해 얻는다는 것이다. 외과 의사의 초기 수련 과정이 유익할 수 있는 것은, 해부학 시간을 통해 과거 여러 세대의 경험의 축적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며, 외과 의사가 어디에 메스를 대야 하는 지를 알게 해주는 인체 구조에 대한 세세하고 정확한 지식은 수백 년 동안 수백만 번의 해부를 통해 축적된 것으로 이 신체 구조를 묘사하는 목적만을 위해서 고도로

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각 전문 학습에서 전문 어휘력이 중요하고 이들 해당 전문 어휘력을 길러주는 것은 전문 지식을 학습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많은 분야에서 전문 어휘를 별도로 배우게 되는 것이다.⁶⁾

우리가 간호학을 배운다면 우리는 간호학에 관련되는 전문 어휘인 간호학 용어를 배움으로써 간호학에 대한 기초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간호학 서적을 읽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는 간호학 관련 글의 문법이나 음운, 관련 경험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간호학 전문 용어를 모르기 때문일 경우가 많을 것이다. 따라서 일반인이 아닌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잘 분화된 어휘를 제대로 아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각 전문 분야의 지식을 얻기 위한 전문 어휘를 직접 국어 교육에서 어휘 교육으로 다루는 것은 아니다. 전문 분야의 전문 어휘는 전문 교과 내에서 다루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국어 교육에서 어휘 교육으로 이를 도울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국어 어휘 교육에서 기초 어휘력을 습득한 학습자는 이 어휘력을 전문 어휘 이해에 사용한다. 대부분의 국어 전문 어휘는 국어 일반 어휘를 바탕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국어 어휘력은 각 전문 분야의 어휘를 만드는데 이용되며 또한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전문 어휘는 국어 일반 어휘력을 이용해서 이해가 용이해진다. 전문 어휘는 대부분이 한자어이다. 전문어는 세분되고 구체적인 의미 전달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미가 세분되고 또한 구체적인 한자어로 만드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 어

전문화된 전문 어휘가 발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외과 의사는 신체 구조에 대한 해부학적 사실들을 익히기 전에, 해부학의 전문 용어를 배워야만 되며, 외과 의사의 “효율적인 수술”은 바로 “효율적인 언어”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이기동·신현숙 역, 1983: 99). 이 때 ‘효율적인 언어’로서의 ‘의학 용어’나 ‘고도로 전문화된 언어’로서의 ‘의학 용어’가 ‘전문 어휘’이다.

- 6) 각종 공공 양식의 경우에도 대부분 단순 어휘소의 나열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그 분야의 전문 어휘이다. 따라서 이들을 모르면 서류를 제대로 완성할 수 없는 것이다.

휘를 이해하는데는 한자 어휘력이 필요하고 한자 어휘력은 국어 어휘 교육을 통하여 높일 수 있다.

일반 학습자가 의학 지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학 전문 어휘를 이해해야만 가능하다. 그런데 ‘의학 용어 사전’을 이용하지 않아도 ‘後天性免疫缺乏症(AIDS), 鐵缺乏性貧血(iron deficiency anemia)’ 등과 같이 한자어 의학 용어는 일반 한자어 지식이 있는 학습자에게는 그렇지 않은 학습자보다 쉽게 이해된다. 따라서 일반 어휘를 교육하는 국어 어휘 교육은 여러 전문 분야의 전문 어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며 나아가 전문 지식 학습에 도움을 주게되는 것이다.

국어로 이루어진 교과 전문 어휘들은 국어 일반 어휘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국어 교육에서 어휘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타 교과의 기술에 사용된 일반 어휘의 이해와 함께 전문 어휘의 이해가 쉽기 때문에 타 교과의 학습에 도움이 된다.

IV. 결론

언어 사용의 주된 목적은 의사 소통에 있다. 언어를 통한 의사 소통은 화자의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가 언어 기호로 작성되어 청자에게 전달되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 기호에 해당하는 어휘소를 그 첫 번째 의사 전달 도구로 이야기할 수 있다. 우리는 글이나 말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표현하려면 어휘력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언어 사용자는 사용 언어의 어휘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효율적인 언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잘 표현된 말과 글은 어휘의 적절한 사용 없이는 불가능하며, 또한 어휘 지식이 없으면 음성 언어이든 문자 언어이든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는 모두 어휘력의 문제이다. 따라서 언어를 통한 의사 소통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는 국어 교육의 경우 어휘력을 신장시키는 어휘 교육은 아주 중요하다 하겠다.

도구 교과 교육으로서의 국어 교육과 어휘 교육의 관계는, 학교 교육을 통해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지식은 기초적으로는 그 개념이나 원리를

담고 있는 어휘로 전달되는 것이며, 따라서 지식 학습의 기초인 어휘력을 신장하는 어휘 교육은 도구 교과 교육으로서의 국어 교육의 기초가 된다. 전문 지식의 학습은 일반 어휘와 전문 어휘를 기초로 이루어지는데 국어 교육으로서의 어휘 교육은 일반 어휘의 교육이며, 전문 지식 교육으로서의 어휘 교육은 전문 어휘를 배우는 것이다. 이때 전문 어휘를 이해하는데 일반 어휘력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전문 어휘는 일반 어휘를 기초로 하여 만들기 때문이다. 즉 전문 어휘가 한자어라면 한자 어휘력은 전문 어휘력을 기르는데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학습자의 어휘를 풍부하게 하는 것이 바로 어휘력을 높이는 것이며 이것이 어휘 교육의 목표인 것이다. 어휘 교육은 국어 교육의 기본 목표인 의사 소통 능력 신장을 위한 기초 능력이며 국어 교과의 사고력을 신장하거나 지식을 얻기 위한 도구이면서 동시에 다른 교과의 학습을 위한 도구로서도 필요한 어휘력을 신장하는 것이기에 그 중요성이 큰 것이다.

참고 문헌

- 김광해(1993), 『국어어휘론개설』, 집문당.
 김광해(1996), 『어휘 연구의 실제와 응용』, 집문당.
 노명완·박영목·권경안(1988), 『국어과 교육론』, 갑을출판사.
 문교부(1988), 『고등학교 교육 과정 해설 -국어과-』.
 민병덕 역(1993), 모티머 J. 애들러 외 저, 『독서의 기술』, 범우사.
 박영목·한철우·윤희원(1996), 『국어교육학원론』, 교학사
 서덕현(1990), “기본어휘의 개념과 기초어휘의 위상 -교육용 어휘를 중심으로-”, 국어교육 71·72 : 211-244.
 서울대학교국어교육연구소 편(1999), 『국어교육학사전』, 대교출판.
 손영애(1992), 『국어 어휘 지도 방법의 비교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 논문.

- 이대규(1990), “날말 수업의 목표와 방법”, 국어교육 71·72,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이삼형 외(2000), 국어교육학, 소명출판사.
- 이영숙(1997), “어휘력과 어휘 지도”, 선청어문 25집, 서울대 국어교육과.
- 이용주(1987), “언어발달단계와 국어교육”, 국어교육 59·60,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이용주(1993), 『한국어의 의미와 문법 I』, 삼지원.
- 이인섭(1986), 『아동의 언어발달』, 개문사.
- 이충우(1992), 『국어 교육용어휘 연구』, 서울대 대학원 박사논문.
- 최현섭 외(1996), 『국어교육학개론』, 삼지원.
- Carter Ronald & M. McCarthy(1988), 1991, *Vocabulary and Language Teaching*, Longman.Bross,
- Bross, I. D. J.(1973), ‘Language in cancer research’, In G. P. murphy. D. Pressman. 이기동·신현숙 역(1983), 『언어와 인지』, 한신문화사.
- Clark, Herbert H. and Eve V. Clark(1977), “Language and thought”, *Psychology and Language*. N.Y. : Harcourt Brace and Jovanovich. 이기동·신현숙 역(1983), 『언어와 인지』, 한신문화사.
- Dale, E., J. O'Rourke & H. A. Bamman(1971), *Techniques of teaching vocabulary*, Field Educational Publications, Inc., New Jersey.
- Gleason, H. A. Jr.(1961), *Descriptive linguistics*, Revised edition, Halt, Rinehart and Winston, N.Y.
- Goodman, K. S. et al.(1987), *Language and Thinking in School*, Richard C. Owen Publishers, INC.
- Gruber, J. S.(1970), *Studies in Lexical Relations*, Indiana Univ. Linguistics Club, Indiana.
- Halliday, M. A. K. et al.(1964), *The Linguistics and Language Teaching*, Longmans.

- Hartmann, R. P. K. (ed)(1983), *Lexicography: principles and practice*, Academic Press, London.
- Mackey, W. F.(1975), *Language Teaching Analysis*, Indiana Univ., Press. Bloomington.
- McNeil. J. D.(1984), *Reading Comprehension : New Directions for Classroom Practice*, Scott, Foresman and Company.

<초록>

국어 어휘 교육의 위상

이 충 우

언어 사용의 주된 목적은 의사 소통에 있다. 이 때 어휘소는 의사 전달 도구가 된다.

잘 표현된 음성 언어나 문자 언어는 적절한 어휘를 사용할 수 있는 어휘력이 없이는 불가능하며, 어휘력이 없으면 제대로 표현하거나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언어 사용 능력 신장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국어 교육에서의 어휘 교육의 중요성은 무엇보다도 크다.

어휘 교육은 어휘력을 신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어휘력은 모든 학습의 기초가 된다. 학습 자료에 쓰인 어휘를 모르고는 그 자료의 이해가 불가능하므로 지식 습득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든 교과 지식의 얻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어휘의 이해력이 필요하고, 관련 교과의 이해를 위한 어휘력은 바로 관련 교과의 기초 능력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핵심어】 어휘 교육, 어휘력, 의사 소통 능력

<Abstract>

A Study on the Importance of Korean Vocabulary Education

Lee, Choong-wu

The major purpose of using language is to communicate. At this time, lexeme become the communication transmitting way.

Using language which express well is impossible without vocabulary that can use properly. And as you can't understand language without vocabulary competence, the education of vocabulary is very important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whose major purpose is to expand language usage competence.

A purpose of vocabulary education is expansion of vocabulary competence, and vocabulary competence is the basic of study. Because if you don't know vocabulary which was used in materials for study, understanding the materials is impossible and it makes you can't knowledge acquire. So the understanding of related vocabulary is essential to get knowledge of whole subject and vocabulary for understanding related subject punctuate as basic competence of related subject.

【Key words】 vocabulary education, vocabulary competence, communicative competence.